

농림축산식품부

학교급식용 농축산물
품질·안전관리 특별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4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2주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학교급식용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업체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농산물을 계약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축산물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특별 점검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이버거래소에서 구축·운영 중인 일선 학교와 식재료 공급업체 간 전자조달시스템

이는 최근 수년 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일선 학교와 공급업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를 통한 농축산물 등 식재료 거래액도 급증함에 따라 농식품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학교급식용 농축산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점검효과는 극대화하고, 점검대상인 공급업체와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점검항목별·시기별로 분산되어 추진된 각종 점검·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의 각 지원·사무소별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했으며, 합동점검반은 원산지 특별사법경찰관 1,100명, 명예감시원 3,000명, 단속보조원 85명 등을 활용하여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희망한 경우 지자체 공무원도 참여시켰다.

점검사항은 농축산물 공급업체의 경우, 원산지 거짓·부정 표시*와 친환경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의 인증기준**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계약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납품하기 위하여 재배 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잔

류농약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했다.

* (단속품목) 학교급식용으로 사용되는 육류(소·돼지·닭·오리 고기), 김치, 쌀, 고춧가루, 마늘 등 모든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

** (점검품목) 유기·무농약·무항생제·GAP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인증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미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거짓표시)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표시기준 위반) 인증 취소

잔류농약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폐기·출하연기 등을 통해 일선 학교에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 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검사기관 대상 축산물
잔류물질 안전관리시스템 교육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전국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4월 7일 김천 검역본부에서 축산물 잔류물질검사 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마다 잔류물질 계획 및 신규물질의 검사 방법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해왔으며, 올해에는 생산단계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및 관리의 효율



적인 수행을 위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이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14개 시·도 검사기관 담당자 25명이 참여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사용방법 및 시·도 요청 사항 등을 반영한 시스템 개선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전국의 시·도 축산물시험검사기관과 함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연간 약 20만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등 143종에 대하여 잔류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나들이철 대비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벚꽃놀이, 현장학습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은 도시락, 봄나물 등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개인위생, 식품 보관·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11~’15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

과, 봄철(4~6월) 식중독 발생은 연간 평균 69건(전체 286건)이며 전체 식중독 환자의 평균 32%가 이 기간에 발생하였다.

※ 최근 5년간(‘11~’15년) 분기별 평균 식중독 환자수(연평균 6,307명) : 1-3월(981명, 16%), 4-6월(2,035명, 32%), 7-9월(2,324명, 37%), 10-11월(967명, 15%)

봄철 식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침·저녁 기온이 여전히 쌀쌀하여 음식물 취급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야외활동으로 장시간 음식물이 방치되는 등 식품보관, 섭취, 개인위생에 대한 관리 부주의로 분석된다.

또한 아산이나 등산로 주변에서 자생하는 자리공, 여로 등 독성식물을 식용나물로 오인하여 섭취하거나 원추리와 같이 미량의 독성이 있는 나물을 잘못 조리·섭취하여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다.

※ 최근 5년간(‘11~’15년) 봄나물 섭취에 의한 환자수(누적) : 원추리나물 5명, 자리공 4명

□ 봄나들이 시 안전한 도시락 준비·보관·섭취 요령은 다음과 같다.

도시락 준비 요령은 ▲조리 전 비누 등 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 씻기 ▲과일·채소류 등은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기 ▲조리 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기 ▲음식은 1회 식사량만큼 준비하고 밥과 반찬은 식힌 후 별도 용기에 따로 담기 ▲김밥을 준비할 경우 밥과 재료들을 충분히 식힌 후에 만들기 등이다.

도시락 보관 및 운반 요령은 ▲조리된 식품은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기 ▲가급적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10℃이하에서 보관·운반 ▲햇볕이 닿는 공간이나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지 않기 등이다. 도시락을 섭취할 때는 ▲식사 전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티슈로 닦기 ▲실온이나 자동차 트렁크에서 오래 보관되었던 식품은 과감히 버리기 ▲마실 물은 가정에서 미리 준비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지 않기 등이다.

□ 봄나물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주로 생채로 먹는 달래, 돌나물, 썸바귀, 참나물 등은 식중독균이나 잔류농약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수돗물에 3회 이상 깨끗이 씻은 후 조리해야 한다.

식용 가능한 봄나물 중에서도 두릅, 다래순, 고사리 등의 경우 미량의 독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 독성분을 제거한 후 섭취해야 한다.

특히, 원추리는 성장할수록 콜히친이란 독성분이 강해지므로 반드시 어린 순만을 섭취해야 하며,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친 후 차가운 물에 2시간 이상 담근 후 조리해야 한다.

※ 콜히친(Colchicine) : 원추리에 있는 수용성 독성물질로 끓는 물에 데치고 차가운 물에 충분히 담구는 것만으로도 쉽게 제거 가능

또한 박새, 여로 등 독초의 어린 순은 봄나물로 오인되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나들이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청소년 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식중독 발생이력 김밥·도시락 취급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식품용수의 수질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음식물 취급과 섭취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안전하고 즐거운 봄나들이가 될 수 있다며, 식중독 예방 사이트(www.mfds.go.kr/fm) 또는 모바일 웹(m.mfds.go.kr/fm)등의 식중독 예측 지도를 통해 지역별 식중독 주의 사항을 확인하고 평소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실천을 당부하였다.

농촌진흥청

가축 활용한 치유축산 모델 개발 본격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축산자원이 갖는 교육적, 치유적 가치를 알리고자 '가축 활용 치유축산 시범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치유축산 모델은 도시민에게는 치유와 위로의 공간을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동물매개활동을 6주간 진행한 결과, 인지기능(12.5점→17.9점)과 우울감(6.7점→1.3점)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유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는 최소 1조6천억 원(추정)으로, 식량공급원으로만 여겨왔던 닭이나 돼지 같은 가축을 치유도우미로 활용한다면 그 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도시농업 성장에 맞춰 도시형과 농촌형 등 유형별로 치유축산 모델을 개발, 현장에 적용해 새로운 축산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먼저, 학교 텃밭을 운영 중인 도시 내 초등학교와 중

학교 총 3개 학교를 대상으로 5월부터 '학교꼬꼬' 실
증시험을 한다.

미적 설계를 더한 도시닭장을 조성하고, 닭에 대한 전
문지식이 없는 학교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
사용·학생용 닭 돌보기 운영 지침을 보급한다.

달걀에서 병아리가 탄생하는 과정과 분뇨를 텃밭 퇴
비로 활용하는 방법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적용해 치
유 효과를 높이고, 올바른 축산물 식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니돼지나 유산양 등 중소가축을 활용한
학교형 동물농장 모델을 찾아내 70여 개 동물복지 축
산인증 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치유농장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이명숙 기술지원과장은
“올해를 동물매개치유 기반을 다지는 원년으로 삼아
다양한 프로그램과 모델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호남지역 유통분야 HACCP 활성화 위해 대형 유통경영체 대상 설명회 개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 이하 인증원)은 3
월 31일(목) 축산물HACCP 단계 중 인증률이 다른 단
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유통분야의 인증률을 활
성화하기 위해 대형 유통경영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는 관내에 위치한 4개 대형유통업소
HACCP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인증원에서는 김영수
호남지원장을 비롯해 가공·유통팀 심사관이 함께

했다.

김영수 호남지원장이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고시 개정
사항과 안전관리통합인증제에 대한 소개 교육을 실시
한 뒤, HACCP 운용시 착안사항과 업체별 애로 및 건
의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인증원은 “유통분야 HACCP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며 “대형유통업소가 축산
물의 위생과 안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
록 교육 및 현장 기술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대형유통업소 관계자는 “HACCP적용 작업장에서 생
산되는 제품의 위생과 안정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해 달라”며 “대형유통업소도 HACCP 인
증 확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민단체장 초청 경영간담회 개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지난 4
월 6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창조경제시대
의 농식품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영간담
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

농업기술자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등 전국 24개 농민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경제 시대 정부의 농정 추진방향과 aT의 정책사업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농식품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가자들은 농식품 전문자료가 마련되어 있는 aT북카페와 농식품 온라인마케팅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aT스마트 스튜디오, 농업의 가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aT 농식품 비전전시관 등 최근 aT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농식품 비즈니스 창조·융합허브 ABC(Agriculture Business Center)사업 설명을 듣고 현장을 견학하며, 농업기관들의 지방 이전 후 수도권 농식품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aT의 노력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재수 aT 사장은 “공사는 신뢰받는 국민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임직원들의 창조적 마인드를 내재화하고, 각계각층의 농식품 유통인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농수산식품의 창조적 가치창출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경영과 사업에 적극 반영 하겠다”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희망축산 선포식 개최

4월 4일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 축산경제부문은 농협 안성교육원(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정봉길 192) 상생관에서 전국축협조합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 및 전국 139개 축협조합장 등이 참석



한 가운데 1부 순서로 전국축협조합장회의를 진행하고, 2부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희망축산 선포식을 개최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청정축산,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축산을 선포했다.

1부 행사에서는 2015년도에 축산경제부문 각 사업별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7개 축협에 대해 연도대상을 시상한 후,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 주관으로 축산현안에 대해 축협조합장들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이천일 국장이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2부 <국민에게 사랑받는 희망축산 선포식>에서는 가축냄새, 가축분뇨 등 환경문제로 야기되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기 위한 축산인들의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청정축산·안전축산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결의를 다짐했다. 아울러, 행사 이후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의 특강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최근 축산경제부문의 각종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우편산업진흥원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 위한 상생협약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은 4월 19일 우체국 쇼핑을 통한 등급판정 받은 축산물의 온라인 직거래 환경 구축 및 신 유통경로 확충을 위해 한국우편사업진흥원(원장 이춘호, 이하 진흥원)과 상생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우체국 쇼핑 축산물 제품의 품질 표준화를 구현하고,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새로운 유통경로를 개발하는 등 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축평원은 축산물의 품질 표준화를 구현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철저한 관리로 우체국 쇼핑 공급업체의 품질관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진흥원은 고품질의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특히 신규 상품 모집시 축산물등급판정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공모·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축평원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유도를 통해 정부의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동시에 유통단계 축소 및 구조 개선을 통한 관련 비용 절감으로 소비자에게 등급판정 받은 국내산 축산물 제품의 합리적 구매 선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눔축산운동본부

농촌다문화가정 초청
축산현장 체험 실시



(사)나눔축산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김태환·이병규)는 4월 4일 농촌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 부모 및 자녀 160명을 초청하여 안성팜랜드에서 축산현장 체험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초청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국내 최대 놀이형 목장인 안성팜랜드에서 가축 먹이주기, 트랙터 마차 타기, 승마체험 및 치즈 만들기 등 다채롭고 이색적인 축산체험 시간을 가졌다.

김태환 상임공동대표(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다문화가정은 우리 농업·농촌의 든든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축산을 쉽게 이해하고 이웃과 함께 소통하고 상생하는 훈훈한 정이 넘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촌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펼치는 나눔축산운동의 일환으로 매년 전국의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후 나눔축산운동본부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축산현장 체험행사를 가질 예정이다.